

나산나소(羅産羅消)로 나주를 친환경학교급식 메카로!



주 경 천

나주시청 농업정책과

1. 들어가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은 인간 기본 욕구로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문제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 것임에 틀림없다.

나주지역에서 학교급식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은 2003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말에 시 농정부서에서 수립한 친환경학교급식클러스터사업 계획을 통해 나주 친환경학교급식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잡아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다.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 보다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올바른 친환경학교급식의 방향성과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핵심주체들의 성숙한 모습들이 나주 친환경학교급식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2. 지금까지 추진상황

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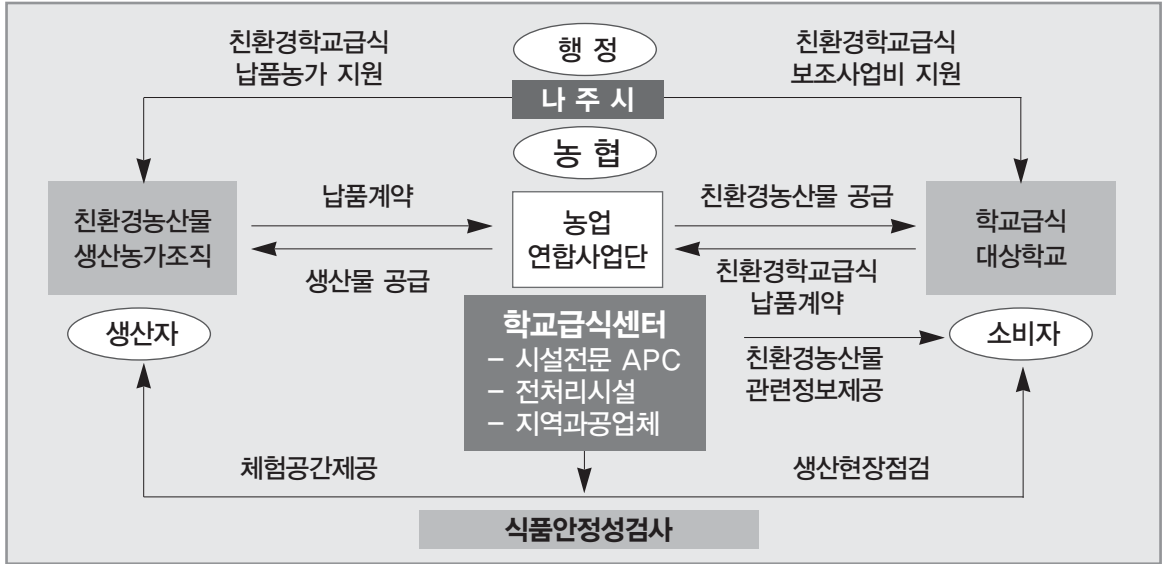
나주시는 농촌 도시 복합도시로 전체 인구는 10만도 못 되며, 시(市)단위 전국의 지자체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역이다.

물론, 지역경제의 중심은 농업으로 특별한 고부가가치산업 기반도 없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2003년 젊은 시장의 강력한 의자와 이에 동의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나주에서 전국 최초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며 요즘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재정문제 등을 핑계로 자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와서 보아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나. 친환경학교급식 클러스터사업 계획

2004년 말 시작하여 2005년 초에 수립된 친환경학교급식 클러스터사업 계획은 당초 농림부 지



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을 겨냥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탄생하였으나, 2006년 CJ 급식사고 이후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핵심내용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생소했던 HACCP 기준을 적용한 전처리시설과 도농교류지원센터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였다.

나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친환경학교급식 클러스터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말 시 자체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현재 거점 APC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를 마친 상태로 2008년에는 가동이 가능할 것이다.

다. 친환경농산물 계약, 계획 생산체계 구축

나주시는 친환경농업을 그 동안 집중 육성한 결과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친환경학교급식 생산 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별로 품목을 나누어 집중 생산하고 있는데 엽과채류는 산포면 일대를, 수도작은 반남면 일대를, 잡곡류는 공산면 일대를 생산단지로 지정하여 친환경자재비를 지원하여 농가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고 생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등 나주 전체를 친환경학교급식 생산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생산계획은 1년 전 학교 영양사회와 사전협의의를 통해 연중 월별 필요한 물량을 파악하여 이를 역산하여 파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 물량을 맞추어 가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연중 동일가격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참여농가들은 안정된 소득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운영

나주 친환경학교급식의 중심축은 2005년 하반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구성 및 역할)



APC



전처리시설



도농교류

-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
- 전처리시설 설치 운영
- 도농교류지원센터 운영

기에 구성된 학교급식 관계기관 협의회로 2007년 조례 제정으로 그 이름을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지역내 주체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회, 교육청,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생산농가, 유통농협, 지자체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와 추진을 하고 있어 나주 학교급식은 어느 한 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 상호의견 차이로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갈등도 있었으나 이제는 상호를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나주 학교급식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장점검과 추진 상황 점검 식재료 안정성검사 등 실질적인 나주시 친환경학교급식을 이끌어 가고 있는 조직으로 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다.

마. 농사체험농장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에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에서 먹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언제든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식교육을 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앞으로 추진계획

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

나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와 학부모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데 나주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최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경쟁력 있는 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관선이사와 공무원 감사 파견, 운영 조례 제정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완전한 친환경학교급식 추진

2007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까지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현장에서 완벽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재배된장, 재래간장, 재래고추장을 중심으로 친환경가공식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물도 공급하는 등 지역에서 나지 않는 수산물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전식재료를 나주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공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나산나소(羅産羅消)를 통하여 나주지역을 친환경학교급식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㉞